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 수료자 취업효과 증진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 02-3156-7125, e-mail : seonshin@kwidimail.re.kr

요 약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취업효과 증진을 위해, 취업의지가 강한 수강생을 선발하도록 수강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 후 지역 여성 HRD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취업자들에게 직무능력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들 역시 절반 이상이 관련분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효과가 높은 편이다. 특히 미취업자 중에서 사업 종료 후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관련 효과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다. 취업자의 경우 직무능력향상이나 업무 개발, 승진, 이직 등 모든 항

목에 있어서 남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얻었고, 미취업자가 관련 분야로 취업했을 경우에도 여성의 고용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원인으로 미취업자 여성 중 “교육받은 분야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고, 사업 종료 후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의 88.2%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프로그램 등록 당시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등록한다거나, 프로그램 종료 직전이나 직후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취업연계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미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수강생 선발기준
 - 미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 혹은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생 선발 기준에 지원자의 취업의지와 수료 후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포함시킨다. 취업의지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평가하고, 수료 후 구직활동 계획은 1페이지 정도의 계획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자기소개서나 구직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기 어려워하는 여성의 경우, 지역 내 여성 HRD 기관(예, 새로일하기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시·도의 지역인재육성사업단은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내 여성 HRD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지역 내 여성 HRD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 회의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후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등록 당시 미취업자였던 여성들 중에는 구직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 77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센터들은 센터가 설치된 기관(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의 지역인재육성사업단이 이들 센터에 지역인재육성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서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수요생을 선별하고, 각 수요생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연계 서비스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사업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관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의 업무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1인당 사업비를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3,804명) 중 등록 당시 미취업자로 사업 종료 후에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의 수는 대략 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모두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약 1,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3. 정책효과

- 사업 종료 후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취업효과 제고.
- 사후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

-
-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인력정책과)
-